

러 청년 3명이 무차별 린치 인종차별범죄 가능성 '경악'

■ 러 연수 광주교대생 집단폭행 사망

러시아 어학연수 중 집단폭행 당해 숨진 광주교대 사회교육과 3학년 강모(22)군은 인종차별에 의한 범죄에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 현지경찰은 용의자로 보이는 러시아 청년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며, 강군 등의 고품파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최근 러시아에서 수년째 잇따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강군이 희생된 것이라는 게 현지 교민과 광주교대 등의 분위기다.

광주교대 등에 따르면 숨진 강군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알타이국립사범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여자친구(22)와 함께 학교 밖으로 외출했다. 강군 등은 학교와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산 뒤 귀국사로 돌아오는 길에서 러

시아 청년 3명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들은 발다른 요구 없이 흥기에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무차별 집단폭행은 강군이 혼절할 때까지 계속됐다. 러시아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로 보이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러시아 청년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며,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광주교대와 알타이 국립 사범대도 과거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연수에 참

가한 20명의 학생들에게 ▲혼자 학교 밖 외출금지 ▲날갈 경우 현지 학생들과 동행 등을 주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교대 담당 직원은 알타이 국립사범대까지 학생을 인솔하고, 지난 1월 29일 연수 시작 후 5일이 지나 귀국했으며 이후 학생 관리는 현지 대학에서 맡아왔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애초 프로그램은 오는 23일까지이지만 현지 분위기가 어수선해 나머지 학생들도 조기 귀국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0대 유학생 2명이 흥기에 찔려 부상했고, 2007년 2월에는 유학생 1명이 집단 구타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뒤 숨졌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대학 측은 지난해 7월 알타이 국립 사범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지 학생 관리감독 안돼 안전 사각

■ 단기 연수 문제점 원가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해외연수가 급증하면서 현지에서의 각종 사건·사고 등 불상사 발생 가능성도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천~1천100명이 해외연수에 참가하고 있다. 대학 측이 이들 학생에게 지원되는 연수비도 지난해만 5억6천만 원에 달했다.

조선대도 2월19일 현재 30여 개 국가에 300명이 넘게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연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해외 연수 유형은 일반적으로 ▲해외 체험(2주~3주)-동남아시아, 유럽 등 문화 체험 ▲단기 어학연수(1~2개월) ▲장기 어학연수(4~6개월) ▲교환학

생·전공연수(1년)-어학연수 겸 학점 교환 ▲국제인턴(2~6개월)-외국대학이나 시민단체·기업체 해외 봉사 활동(학교단위 또는 학생 자체조직) 등이다.

이처럼 수많은 학생들이 연중 다양한 형태의 연수에 참여하고 있지만 출국 전 사전교육을 제외하곤 사실상 현지에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감독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해외연수는 20명 이상 1년 이상 체류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인 경우는 지도교수가 연수기간 현지에서 상주하지만, 대다수 프로그램은 연수 초기 수일간 대학 관계자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해외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패 파

악마저 여러 실정이다. 여기에다 연수지역도 기존의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서 벗어나 우간다, 시리아, 스코틀랜드 등 대륙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여 학생들의 소속 대학은 물론 현지 공관의 대처능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해외 연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사전 안전교육은 물론 수시로 국제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외국에서의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선대 김하림 교수는 "사실상 성인인 대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면서 "연수 지역별로 사전교육 및 현장교육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ae@kwangju.co.kr



만학도들의 눈물

19일 오전 고교학력 인증 평생교육시설인 광주 대신고 졸업식에서 만학의 꿈을 이룬 졸업생들이 재학생 대표의 송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신고는 이날 제2회 졸업생 233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최현배기자 chae@kwangju.co.kr

빙판길 차량 충돌

택시기사 등 2명 부상

19일 오전 8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김모(49)씨가 몰던 택시와 마주 오던 5t짜리 쓰레기 수거차량(운전자 김모씨·49)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김씨와 승객 정모(25)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도로에 택시가 미끄러진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택시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시·도교육감 업무비

부당 집행 혐의 고발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하 밝은 세상)'은 19일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 및 양 기관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가 있어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밝은 세상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양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광주시교육감은 260여 건, 전남도교육감은 610여 건에 달했다"며 "의심사례 대부분이 홍보활동 명목의 격려금이나 민간인 측·조의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밝은 세상 측은 또 고발장에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의 경우 265건에 2천600여만원,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은 613건에 1억616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올 첫 교환 연수인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충격 휩싸인 광주교대

교환학생으로 러시아에서 연수중이던 광주교대 강모(22)군이 현지 청년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군의 학과 친구들은 슬픔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 대학당국은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학생대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교대 기획연구처 목적식 팀장은 "러시아로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와 안심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현지 소식을 잘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박남기 총장과 이동우 기획연구처장이 현지에서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강군의 부모와 장례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학 측은 지난해 7월 알타이 국립 사범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올해 첫 학생교환 연수에 나섰다. 가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내년부터 연수 프로그램을 폐지할 방침이다. 연수 기간은 4주간으로 100만원을 대학 측이 지원하고, 학생 부담은 56만원에 불과해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 친구들은 강군이 지난해 사회교육과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한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비보(悲報)를 접한 학생들은 말을 잊지 못했고, 러시아 단기연수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됐다.

같은 과 후배 황도(21)군은 "후배들에게 싶은 소리 한 번 안 할 만큼 착한 형이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친구 이모(22)양은 "지난해 학과 학생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모범적인 친구인데, 사고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종필기자 golee@kwangju.co.kr



신안 등서 집단서식 희귀철새 '습새' 이동경로 규명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이용해 희귀한 여름 철새인 '습새'의 이동경로를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 철새연구센터에 따르면 습새는 신안군 칠발도 등 동아시아 지역 무인도에서 광복 등이 우거진 암반지역에 1m 정도 깊이 이골을 파고 여러 쌍이 집단서식한다.

번식한 습새 새끼들은 어미와 함께 3~10월 흑산도와 홍도 등 우리나라에 머무르다가 가을이 되면 약 22일간 3천600km를 이동해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멸종을 잡아먹는 습새는 한 번에 한 개의 알만 낳으며 알을 품는 기간도 다른 철새에 비해 무척 길어 번식력이 약한 희귀종이다.

연구자들은 2009년 홍도와 흑산도에서 관찰한 철새 271종 30만마리 중 5천마리에 금속 가리지를 달아 이동경로와 분포를 조사했다. /연합뉴스

단속 공무원 금품수수

경찰 구청 압수수색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면서 금품을 건넨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광주 A구청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광주 A구청 건축과 공무원의 컴퓨터와 업무 서류 등을 압수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해당 공무원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배우 성현아 결혼 3년만에 이혼



배우 성현아(35)가 결혼 3년 만에 남편 허 모 씨와 이혼 절차에 돌입해 마무리 단계.

오연에게 관계자는 "성현아 씨가 남편과의 성격 차이 등으로 고민해왔다"며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결혼한 만큼 끝까지 잘 살려고 했지만, 결국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연은 MBC TV '이산'에 출연 중이던 2007년 12월 한 살 연하의 사업가 허 모 씨와 결혼했으며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 /연합뉴스

광주 김치종합센터 불

공사 분리 발주로 현장 통제 제대로 안돼

지하 저장고 전소 ... 4월말 준공 차질 우려

19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임암동 김치 종합센터 신축공사장 지하 1층 김치저장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지하 1층(500㎡)이 모두 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지상 1~2층도 연기에 그을려 피해 금액은 늘 전망이다. 당시 지하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인부 5명은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서 김치저장고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용

접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났으나,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는 인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현재 공정률 92%를 보여 4월 30일에 준공을 예상한 시는 이 불로 공사 내부 1천200㎡와 공사시설, 대형 냉장고 등이 모두 타 준공이 2개월 가량 늦어지는 등 공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치 종합센터는 7만9천932㎡의 부지에 전체면적 8천445㎡,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80억원이 투입돼 김치공장 및 박물관, 체험장, 판매장 등 김치를 전문 소재로 한 테마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불이 난 김치저장고 공사는 김치종합센터 공사와 분리발주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서로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김치 종합센터와 지난해 유지한 김치연구소를 축으로 한 김치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해 김치 종합센터의 완공도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표차로 당락 결정된 농협조합장

당선자도 낙선자도 '표값 100만원'

목포경찰 금품살포 수사

단 한 표차로 당락이 갈린 농협조합장 선거 당선자와 낙선자를 비롯한 후보들이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목포경찰은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농협법 제103조)로 신안 모 농협조합장 선거 당선자를 포함한 출마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 씨는 선거 과정 중 조합원 B 씨 집 방문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낙선한 C 씨도 B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김병관기자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4분
해질 18시 19분

달돋이 09시 52분
달짐 1시 1분

나들이 하기 좋아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았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3/11℃
목포	맑음	-2/10℃
여수	맑음	0/10℃
완도	맑음	-1/10℃
구례	맑음	-6/11℃
예남	맑음	-3/11℃
장흥	맑음	-5/11℃
고흥	맑음	-4/11℃
순천	맑음	-3/11℃
영광	맑음	-4/10℃
진도	맑음	-1/11℃
전주	맑음	-3/10℃
남원	맑음	-7/8℃
흑산도	맑음	2/9℃

시간	기상	기온
21(일)	맑음	1/13
22(월)	맑음	1/15
23(화)	맑음	2/16
24(수)	맑음	6/18
25(목)	흐림	10/14
26(금)	흐림	8/12

국립기상청 제공

국립기상청 131 (광주지방기상청)